

보도시점 2026. 6. 9.(화) 11:00
6. 10.(수) 조간

배포 2026. 6. 9.(화) 09:00

국립종자원, 국제식물신품종연맹(UPOV) 농작물 실무기술회의(TWA) 서울 개최

- 세계 각국 품종보호 전문가 한자리에, 농작물 품종심사기술 국제협력 강화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55차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이하, ‘UPOV’) 농작물 실무기술 회의(이하 ‘TWA’)를 개최한다.

- * 국제식물신품종연맹(UPOV :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식물 신품종에 대한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 * TWA(Technical Working Party for Agricultural Crops) : 벼, 녹두, 고구마 등 농작물의 신품종보호를 위하여 국제심사기준을 논의하는 실무기술회의

TWA 회의는 UPOV 기술위원회에 속한 작물분야별 5개 실무기술회의 중 하나로 벼, 녹두, 고구마, 사탕수수 등 농작물의 식물신품종 국제심사기준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 50번째 UPOV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각종 UPOV 회의를 개최하거나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품종보호제도 운영 역량과 심사기술 수준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품종심사 전문성과 심사기술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 우리나라는 매년 500여건 출원·등록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세계 7위를 기록

제55차 UPOV 농작물 실무기술회의(TWA)는 미국, 네덜란드, 중국, 일본 등 43개국 140여 명의 대표단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 안건은 각국의 품종보호 동향보고,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및 조사방법 등이다.

- * (총 7작물) 사탕수수, 곡물 아마란스, 사료용 비트, 녹두, 화이트 머스타트, 화이트 클로버, 고구마

한국대표로 국립종자원을 비롯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석하여 신품종 개발 및 품종보호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회의 3일 차인 6월 17일에는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 국립농업박물관 그리고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하는 현장 견학도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농작물 육종 현장과 우리 농업의 역사·문화, 쌀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처리 과정을 직접 살펴보며 한국의 농업연구 기반과 식량·종자산업 현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축적해 온 품종보호 및 종자산업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심사기준 마련 과정에 국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내 육성품종의 해외진출 및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UPOV TWA 서울 개최는 우리나라가 국제 품종보호 논의의 주요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행사”라고 하며, “품종보호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2. 2026년 UPOV 제55차 농작물 실무기술회의(TWA) 개최계획

| | | | | |
|-------|----------------|-----|-------|--------------------|
| 담당 부서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 책임자 | 과장 | 양미희 (054-912-0200) |
| | | 담당자 | 농업연구관 | 장준연 (054-912-0201) |



붙임 1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 설립 목적 및 기능

-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품종보호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국가 간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조화 및 품종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등 회원국 기술지원(스위스 제네바 소재)

□ 조직 및 체제

- 사무총장: Daren Tang(Mr.), 싱가포르
 -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이 겸임
- 사무차장: Yolanda Huerta Casado(Ms.), 스페인
- 체제: 총회(이사회), 자문위원회, 행정·법사위원회, 기술위원회가 있으며, 기술위원회는 작물 분야별 5개의 실무기술회의로 구성
 - * 농작물(TWA), 채소(TWV), 과수(TWF), 화훼(TWO), 시험방법·기술(TWM)

□ 회원국 현황

- '26.1월 현재 80개국으로 우리나라는 '02.1.7.,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지역 | 국가명 |
|----------|--|
| 유럽(39) | CPVO(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우크라이나, 몰도바,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벨로루시, 리투아니아, 알바니아,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몬테네그로, 아르메니아 |
| 북아메리카(9) | 캐나다, 미국, 멕시코,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
| 남아메리카(9) |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브라질, 페루 |
| 오세아니아(2) | 호주, 뉴질랜드 |
| 아시아(12) | 한국, 일본, 중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요르단, 베트남, 오만,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
| 아프리카(9)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튀니지, 모로코, 탄자니아, OAPI(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 이집트, 가나, 나이지리아 |

□ UPOV 활동의 중요성

- 작물별 국제 심사기준 논의 시 우리 품종의 특성을 반영하고 우수한 품종의 개발,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종자산업 육성 발전 도모
- 최신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교류 등을 통해 국제 수준의 품종보호제도를 운영으로 신품종 육성가 권리보호에 기여

추진 배경 및 목적

- 농작물 심사기술 개발 및 국가 간 심사기준 조화를 위한 논의
- 국내 품종보호제도의 국제적 홍보 및 국내외 상호 정보교류
 - * 최근 5년간 TWA 개최국: ('25) 탄자니아, ('22) 영국, ('24, '23, '21) 영상의회의
 - ** '04년 채소작물 실무기술회의를 시작으로 작물별 실무기술회의 11회 개최

행사 개요

- 회의명: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제55차 농작물 실무기술회의^{TWA}

- UPOV(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품종보호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국제연맹
- TWA(Technical Working Party for Agricultural Crops): 농작물(고구마, 녹두, 사탕수수 등)의 특성조사기준 등을 논의하는 UPOV 산하 기술전문 회의

- 기간 및 장소: 2026.6.15. ~ 6.18.(4일간), 서울 코리아나 호텔
- 참석 규모: 43개국 140여 명(온·오프 하이브리드)
- 주요 내용: ①작물별 심사기준 논의, ②구별성·안정성·균일성(DUS) 심사 기준 및 공통 심사문서 논의, ③UPOV 정보 DB 관련 협력 방안 논의 등

주요 행사구성

| 구분 | 일정 | 내용 |
|-------|-------------------------|--|
| 본회의 | 6.15.(월)~16.(화), 18.(목) | ○ 한국 품종보호제도 운영현황 발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논의 등 |
| 현장 견학 | 6.17.(수) | ○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 국립농업박물관,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

* (총 7작물) 사탕수수, 곡물 아마란스, 사료용 비트, 녹두, 화이트 머스타드, 화이트 클로버, 고구마

기대효과

- 국제심사기준 논의에 주도적 참여로 국내 품종보호 심사역량 국제적 위상 강화
- 디지털 재배심사, AI 영상분석 등 한국의 선진 기술력 홍보 및 국제협력 확대